‘초상입자’ 그것은 이면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일반적인 물리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일으키는 입자들을 총칭한다. 초상입자들은 우주단위 개척 활동에 핵심 요소이며, 전 우주에 여려 형태로 퍼져있다.

2027년 John. M. Jeol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 IMSR(international material science research)에서 기존의 물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자연입자를 발견 ‘JMJ-KDY407’라 명명하여 국제사회에 발표

2027년 같은 연구소에서 ‘JMJ-KDY407 입자가 초자연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’ 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가 국제 학술지에 개제, 일반 대중에게 ‘마나입자’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연구의 진위여부, 실효성에 대한 문제 등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John. M. Jeol 박사는 추가적인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며 이것이 인류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연구가 될것이라 선언

2028년 John. M. Jeol 박사, JMJ-KDY407 입자를 이용한 초 자연적 현상 재현에 성공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으며 연구가속화

기술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인류가 우주로 나아감